

#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김경하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 The Effects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Kyoung-Ha Kim  
Division of Nursing, S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행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G와 M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7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고 1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기술적 통계, t-test, ANOVA, Pearson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진로정체감( $\beta=-.270, p<.001$ )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 $\beta=.192, p<.01$ )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연구모형은 진로정체감을 28.4%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해 임상실습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간호전문직관을 증가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subjects were 3rd and 4th-year students from the Department of Nursing in G and M cities who were surveyed from July 22 to September 17, 2021. The 196 data points gathere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5.0 for windows. The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 $\beta=-.270, p<.001$ ) was observed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career identity. Nursing professionalism ( $\beta=.192, p<.01$ ) was seen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career identity. The study model accounted for 28.4% of the impact on career ident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implemented to decrease the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to increase nursing professionalism to improve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Keywords** : Clinical Practice, Emotional Labor, Nursing Professionalism, Career Identity, Nursing Students

## 1. 서론

### 1.1 연구 필요성

진로발달에서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확립해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다[1]. 대학생 시기에

자신의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학 입학 전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깊은 성찰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탐색 과정이 중요하지만,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 놓여있는 우리나라 경우 이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20년도 송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A2020-01).

\*Corresponding Author: Kyoung-Ha Kim(Songwon University)

email: gh6081@hanmail.net

Received October 13, 2021

Accepted February 4, 2022

Revised November 11,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2

[2]. 따라서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자신의 진로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탐색하는 과정은 고스란히 대학생 시기에 이행해야 할 진로발달 과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간호대학생의 경우도 적성과 흥미보다는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갑작스럽게 간호학과를 선택하므로[3] 간호학과 입학 후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의 과정은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 간호사라는 진로가 결정되므로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탐색 없이 막연히 대학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에 취업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생 시기 동안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하지 않는 실정이다[4].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은 대학생 시기 동안 충분한 직업 세계에 대한 탐색과 준비 없이 직업 세계로 진입하게 되어 직업 세계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적응을 낳게 되며[5], 이는 높은 신규간호사 이직률(2020년 44.5%)로 이어지게 된다[6]. 따라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성공적으로 직업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생 시기 동안 직업 세계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진로발달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자기 확신과 직업에 대한 명확하고도 안정된 심상으로[7], 자신의 직업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진로 목표에 대한 확신과 안정성을 갖게 하여[8], 졸업 후 간호업무수행과 진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신의 직업 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다[9]. 반면 진로정체감이 잘 확립되지 않은 채 직업 세계로 진입 할 경우 직업 세계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직무만족도가 낮고 이직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와 같이 간호대학생이 직업 세계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진로정체감이 긍정적인 요인이 됨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직업 적응을 위해 대학생 시기에 진로정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대학생은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으로 이루어진 간호교육을 이수하게 된다. 실습교육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갖추어야 할 여러 실제적인 지식, 태도, 역할을 학습하는 과정이며[11], 특히 임상실습교육은 임상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실제적 및 잠재적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운영되는 임상실무 중심의 교육이다[12]. 임상실습교육이 이루어지는 임상현장인 병원은 의료서비스 발전에 발맞추어 고객에 대한 표정, 태도, 감정표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이로 인해 병원의 의료종사자들은 자신의 감정

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표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13]. 조직의 요구에 부합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표정이나 몸짓을 조절하려는 노력을 감정노동이라고 하는데[14], 간호대학생도 예비간호사로서 임상실습 현장에서 기대하는 표현규범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을 바꾸어 표현하는 인위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감정노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경험하는 감정노동은 임상수행능력을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2,16]. 또한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진로정체감에 매우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17]. 그러나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진로정체감의 영향을 미치는 인과관계 연구는 한편에 그치고 있어 이들 관계에 대해 다시 검증 해 봄으로써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확실한 변인인지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하겠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18], 진로준비행동[18,19] 등에 영향을 미쳐 간호대학생의 진로발달을 예측하는 요인 중 하나이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견해나 신념을 포함한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의식적 견해로[20], 간호대학생은 간호교육을 통해 간호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간호전문직관도 확립해간다[21].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인 간호대학생일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16,22]. 또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에도 영향을 미쳐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간호대학생일수록 진로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2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한편의 연구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의미가 있는지 재검증 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 각 각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두 변인 모두 각 각 한편의 연구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을 동시에 예측 변인으로 하여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을 동시에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였을 때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어떠한지를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

진시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G시와 M시 각 대학 간호학과에 재학 중으로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한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 수는 회귀분석을 위한 적정 표본크기 산정을 위해 G\*Power 3.1.9.7 program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 예측 변인 10개로 산출한 결과 172개로 확인되었으므로 회수율과 탈락률을 고려하여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200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 응답을 보인 4부를 제외한 196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진행되었으며 작성된 설문지는 즉시 회수하였다. 자료수집에 앞서 각 대학의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허락을 득한 후 대학과 학과의 절차에 따라 2021년 7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 2.2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설문에 앞서 설명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연구 참여에 따른 위험과 이득,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 연구 참여 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음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자의 이름과 연락처

를 명기하여 설문 후 언제든지 의문 사항에 대해 질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문 후 소정의 선물을 제공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임상실습 감정노동

감정노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Morris와 Feldman [24]의 연구를 기초로 Kim [25]이 개발한 감정노동척도를 Kang [13]이 수정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감정노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13]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9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6이었다.

#### 2.3.2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는 Yoon 등[20]이 개발하고 Han 등[26]이 수정한 도구를 Kang [16]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Kang [16]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5$ 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24였다.

#### 2.3.3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 측정도구는 Holland 등[7]이 개발한 직업상황검사(My Vocational Situation:NVS)를 Kwon과 Kim [27]이 수정·보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총 14개의 문항으로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까지 4 Likert 척도로 모든 문항은 부정문항이므로 역환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과 Kim [27]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5였다.

###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 25.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정체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ANOVA, Scheffé test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

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정도

임상실습 감정노동의 평균은 3.03점(SD=.52), 간호전문직관의 평균은 3.82점(SD=.47), 진로정체감의 평균은 2.64점(SD=.44)으로 Table 1과 같이 조사되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ment Variables (N=196)

Variables	Mean±SD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3.03±.52
Nursing Professionalism	3.82±.47
Career Identity	2.64±.44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정체감 정도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이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의 사후 검정 결과, 지원동기는 적성과 흥미가 안정적 직업과 타인의 권유보다 유의하게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공만족도는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전공만족도가 높은 학생이 진로정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Career Identit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96)

Characteristics	Range	n(%)	Career Identity	
			Mean±SD	t / F Scheffé
Age	>24	136(69.4)	2.61±.45	-1.290 (.198)
	≤24	60(30.6)	2.70±.41	
Sex	Male	29(14.8)	2.65±.45	.923 (.357)
	Female	167(85.2)	2.56±.38	
Grade	3rd	105(53.6)	2.66±.49	.947 (.345)
	4th	91(46.4)	2.60±.37	

Motive for Applying	Aptitude, Interest <sup>a</sup>	71(36.2)	2.83±.43	13.240 (<.001) a>b,c
	Stable Job <sup>b</sup>	96(49.0)	2.54±.41	
	Another's Advice <sup>c</sup>	29(14.8)	2.46±.44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sup>a</sup>	59(30.1)	2.88±.46	19.290 (<.001) a>b>c
	Moderate <sup>b</sup>	124(63.3)	2.56±.38	
	Dissatisfaction <sup>c</sup>	13(06.6)	2.24±.32	
Economic State	High	17(08.7)	2.56±.39	.280 (.756)
	Medium	160(81.6)	2.64±.45	
	Low	19(09.7)	2.65±.30	
Work Experience	Yes	157(80.1)	2.60±.42	-1.959 (.052)
	No	39(19.9)	2.76±.48	

#### 3.3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 상관관계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간호전문직관(r=-.146, p<.05)과 진로정체감에(r=-.375, p<.001)에 모두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고, 간호전문직관과 진로정체감(r=.282, p<.001)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Table 3과 같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easurement Variables (N=196)

Variables	1	2	3
1.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1		
2. Nursing Professionalism	-.146 (<.042)	1	
3. Career Identity	-.375 (<.001)	.282 (<.001)	1

#### 3.4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순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일반적 특성인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를 더미변수 처리하여 통제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성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tolerance)가 .609~.936으로 나타나 .10이상의 기준을 충족하였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69~1.611로 10을 넘는 변인이 없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속변수의

Table 4.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Career Identity (N=196)

Variables	$\beta$	t	Ad. R <sup>2</sup>	F	Durbin-Watson
Emotional Labor of Clinical Practice	-.270	-4.302 ( $<.001$ )	.284	13.907 ( $<.001$ )	1.935
Nursing Professionalism	.192	3.073 (.002)			

자기상관을 검증하기 위해 Durbin-Watson값을 확인한 결과 1.935(1.830<d<2.296)로 종속변수는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3.907, p<.001), 수정된 결정계수(Adjusted R<sup>2</sup>)는 .284로 본 연구의 독립변인들은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28.4%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감정노동( $\beta=-.270$ , p<.001)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고 간호전문직관( $\beta=.192$ , p<.01)은 진로정체감에 유의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주요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대상자는 임상실습 감정노동 평균 3.03점, 간호전문직관 평균 3.82점, 진로정체감 평균 2.64점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5점 만점에 평균 3.03점을 보였는데 동일 대상 및 도구를 이용한 Noh [11]의 3.05점과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Oh 등[17]의 3.80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간호대학생이 임하는 임상실습 기관의 조직문화 같은 환경에 의해 달라질 수 있음으로 두 연구의 대상자가 경험한 임상실습 기관의 조직문화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간호전문직관 평균은 3.82점으로 동일 대상 및 도구를 이용한 Lee와 Jang [23]의 3.27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은 전공만족도와 임상실습 교육환경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는데[23,28], 본 연구보다 Lee와 Jang [23]의 연

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만족'인 대상자가 더 많음으로 Lee와 Jang [23]의 평균 점수가 본 연구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는 임상실습 교육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겠다. 또한 COVID-19라는 어려운 상황속에서 간호사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간호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바[29],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수행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진로정체감은 평균 2.64점을 보였는데 Lee와 Jang [23]의 2.46점과 Kim과 Ko [30]의 2.64점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둘째, 본 연구대상자에서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인 일반적 특성은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 대상 및 도구를 이용한 Lee와 Jang [23] 및 Kim과 Ko [30]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Lee와 Jang [23]의 연구와는 일치하였고 Kim과 Ko [30]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지원동기와 전공만족도 외에 진로정체감에 차이를 보이는 일반적 특성에는 임상실습 만족도[30]와 동아리 활동 여부, 성적, 졸업 후 취업을 원하는 곳, 대인관계[23]도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이러한 특성들을 추가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 진로정체감 간의 상관관계는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은 학생이 진로정체감이 낮다는 연구결과[18]와 일치하였고,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갖고 있는 학생이 진로정체감이 높다는 연구결과[23]와 일치하였으며,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으면 간호전문직관이 낮다는 연구결과[16]와 일치하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에서 감정의 부조화를 경험하지 않고 간호사라는 전문직에 대한 직업의식이 투철하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져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넷째,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감정노동,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지원동기를 통제한 상태에서 임상실습 감정노동

은 진로정체감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간호전문직관은 진로정체감에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와 동일하게 전공만족도와 지원동기에서 차이를 보인 Oh 등[17]의 연구에서 임상실습 감정노동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간호전문직관이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Lee와 Jang[23]의 연구는 전공만족도 외에 성적, 입학동기, 대인관계를 통제한 상태에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간호전문직관 보다 진로정체감을 더 강력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 증진을 위해서는 임상실습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고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중재가 필요하다. 우선, 임상실습 감정노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보면, 임상실습 감정노동은 간호대학생이 간호사의 무례함을 경험할수록 높아지고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된바[31,32], 간호사의 무례함 경험을 감소시키고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생이 실습에 임하기 전 실습병원의 조직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으로 하여금 실습병원의 조직문화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실습병원의 조직문화에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고, 실습지도 시 지도자는 학생이 겪었던 감정노동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실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도자와 학생 간 그리고 학생 상호 간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감정노동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우며, 실습병원에서는 건전한 조직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조직구성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간호교육 현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의 예측요인에 근거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회복탄력성을 증진시켜야 하겠다. 다음으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되는데, 간호전문직관은 간호교육내에서 달성해야 할 간호 핵심 역량 중 하나로 모든 간호대학에서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해 교과목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진로정체감 증진에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다. 간호전문직관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확고한 역할을 인식하여 명확한 직업관을 세우게 되는데[33], 임상실습과 관련하여 임상실습 만족도가 간호전문직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34],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로정체감 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직업 세계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진로정체감에 중점을 두고 임상실습 감정노동과 간호전문직관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겠다.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대상을 여러 지역으로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진로정체감이 실제로 증진될 수 있도록 진로정체감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기를 제언한다.

## References

- [1] D. E. Super,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16, pp.282-298, 1980.  
DOI: [https://doi.org/10.1016/0001-8791\(80\)90056-1](https://doi.org/10.1016/0001-8791(80)90056-1)
- [2] J. C. Lee, A. J. Hong,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s'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Employability", *HRD research*, Vol.15, No.3, pp.215-245, 2013.  
DOI: <https://doi.org/10.18211/kihrrdq.2013.15.3.009>
- [3] Y. M. Jung., "A Longitudinal Study on Nursing Students' Career Identity, Career Adaptation, and Satisfaction with Maj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8, pp.89-103, 2018.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8.89>
- [4] T. J. Jang, M. K. Moon, "Factors influencing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2, No.4, pp.344-352, 2016.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6.22.4.344>
- [5] Y. J. Ko, I. K.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Nursing Value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7, No.1, pp.62-71, 2011.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1.17.1.062>
- [6] Hospital Nurses Association, Survey on the status of hospital nursing staff placement.  
<https://khna.or.kr/home/pds/utilities.php> (accessed

- Nov. 25, 2021)
- [7] J. J. Holland, D. C. Gottfredson, P. G. Power,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 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9, No.6, pp.1191-200, 1980.  
DOI: <https://doi.org/10.1037/h0077731>
  - [8] R. S. Sharf,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p.475, Thomson Publication, 2006, p.475.
  - [9] H. Cho, G. Y. Lee,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0, No.2, pp.163-173, 2006.
  - [10] J. H. Kim, S. N. Jang, H. J. Ji, G. J. Jung, Y. J. Seo, J. H. Kim, Y. S. Choi, "The effect of parental social support on the transition to college life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undergraduat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9, pp.6027-6035.  
DOI: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27>
  - [11] Y. G. Noh,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actice Stress, Emotional Labor and Burnou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25, No.3, pp. pp.461-470, 2019.  
DOI: <https://doi.org/10.11111/jkana.2017.23.5.461>
  - [12] E. M. Park, Y. S. Song,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3, pp.357-365, 2019.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3.357>
  - [13] S. Y. Kang,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Resilience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Emotional Lab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8, pp.181-198, 2019.  
DOI: <http://dx.doi.org/10.22251/lccci.2019.19.8.181>
  - [14] A. R.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p.339,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pp.89-161.
  - [15] S. Y. Kang, "Impact of nursing students' emotional labor on burnout during nursing practice in a hospital: Moderating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1, pp.77-87, 2015.  
DOI: <http://dx.doi.org/10.11111/jkana.2015.21.1.77>
  - [16] E. Y. Yeom,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320-330, 2017.  
DOI: <http://dx.doi.org/10.5397/JKCA.2017.17.04.320>
  - [17] J. W. OH, B. Y. Huh, M. R. Kim, "The Effects of Nurses' Work Environment,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on Nursing Students Perceived Career Ident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10, No.4, pp.59-74, 2019.  
DOI: <http://dx.doi.org/10.22143/HSS21.10.4.5>
  - [18] M. H. Jang, M. S. Kask, J. R. Ah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39, No.1, pp.1-18, 2020.  
DOI: <https://doi.org/10.37210/JVER.2020.39.1.1>
  - [19] H. M. Park, J. Y. Seok, S. Y. Park, S. Y.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7, No.5, pp.1151-1158, 2020.  
DOI: <http://dx.doi.org/10.12925/jkocs.2020.37.5.1151>
  - [20] E. J. Yoon, Y. M. Kwon, O. H. Ahn,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35, No.6, pp.1091-1100, 2005.  
DOI: <http://dx.doi.org/10.4040/ikan.2005.35.6.1091>
  - [21] E. H. Kim, "Relationships of Nursing Professionalism, Self-Leadership and Empowerment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4, No.1. pp.532-541, 2016.  
DOI: <http://dx.doi.org/10.15205/kschs.2016.4.1.532>
  - [22] S. M. Kwon, J. H. Lee, R. W. Kwon, J. H. Lee, "The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Teaching Efficienc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1, No.8, pp.267-276,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8.267>
  - [23] A. R. Lee, H. J. Jang,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n Career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6, pp.2427-2442, 2020.  
DOI: <https://doi.org/10.37727/jkdas.2020.22.6.2427>
  - [24] J. A. Morris, D. C. Feldman, "The Dimensions,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Emotional Labor",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1, No.4, pp.986-1010, 1996.  
DOI: <https://doi.org/10.2307/259161>
  - [25] M. J. Kim, "Research Articles : Effects of the Hotel Employee's Emotional Labor upon the Job - related Attitudes", *Journal of Tourism Sciences*, Vol.21, No.2, pp.129-141, 1998.
  - [26] S. S. Han, M. H. Kim, E. K. Yung,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4, No.1, pp.73-79, 2008.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08.14.1.073>
  - [27] Y. H. Kwon, J. N. Kim, "Effects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Vol.13, No.2, 216-229, 2002.

- [28] C. H. Kim, J. Y. Kim,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5, No.1, pp.5-16, 2019.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5>
- [29] O. S. Lee, J. H. Lim, "Image of nurse and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of nursing students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9, No.5, pp.479-488, 2021.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1.19.5.479>
- [30] N. S. Kim, Y. J. Ko,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 pp.211-218, 2020.  
DOI: <http://dx.doi.org/10.14400/JDC.2020.18.1.211>
- [31] E. Y. Yeom, "The Influence of Experience of Nurses' Incivility and Social Anxiety on Emotional Labor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9, No.14, pp.293-302, 2019.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9.19.04.293>
- [32] S. Y. Kang,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Resilience and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on Emotional Labor",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8, pp.181-198, 2019.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19.19.8.181>
- [33] G. S. Oh, M. K. Lee, "An internship experience to convergence program undergraduated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6, No.5, pp.173-185, 2015.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5.6.5.173>
- [34] K. S. Cho,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7, No.2, pp.142-152, 2020.  
DOI: <http://dx.doi.org/10.5953/JMJH.2020.27.2.142>

김 경 하(Kyoung-Ha Kim)

[정회원]



- 2001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8년 2월 :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아동간호, 인간심리